

건강 칼럼

‘집이 곧 국가’ 라는 시대로의 퇴행 (上)

유 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 탓인지 조심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려는 이 가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 마지막 모습이라도 배웅코자 지난 토요일 가까운 남산 들레길 산보에 나섰다. 동국대 정문을 지나 계단을 한참 올라가니 길이 좌우로 갈린다. 왼쪽 길은 남쪽을 향하는데 그 쪽은 벚꽃 길로는 서울에서도 최고인 줄을 익히거나 단풍으로는 어떨까 싶어 평소 안 가던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북쪽을 바라보며 시내 중심부를 내려다 보는 일만한 길이다. 멀리 익숙한 북한산도 보이고 북악, 인왕산도 보이니 마음이 포근한 기분이었다. 몇 분을 걸으니 단풍나무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이쪽은 아무래도 단풍길이 제격인 모양인데 너무 편안한 길이라고 해서 거의 걸어본 적이 없는 곳이라 새삼스러웠다. 이윽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보란 듯이 하늘을 가리는 길이 나타났다. 단풍나무도 종류가 많아서 어떤 것은 초록 그대로 이고 다른 것들

은 노랑과 빨강과 색동 옷처럼 화려해서 나이든 이들의 마음까지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회현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니 올해 본 단풍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산책 나온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나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한장 찍고 그대로 떠나기가 아쉬워 한참을 머물다가 점심시간이 지났음을 알고 필통 ‘한국의 집’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자 전에 KBS본관이 있던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큰 길을 지나쳤기에 옆으로 난 흙길을 따라 내려가니 뜻밖에도 420여년이 지난 은행나무 두 그루를 발견하니 황제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나 토요일 산보의 황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은행나무 옆 아래로 내려오니 위안부 추모 조형물이 보였다. 왜 여기에 그걸 만들었을까 의아해하며 다가가기 이곳이 일본의 조선통감 관저 터라는 표지석이 있었다. 이 일본의 조선통감 관저에서 1910년 8월 29일 소위 을사 5각인 이완용 총리대신 등이 3대 일본통감인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찾아와서 조선왕국을 일본황제에게 헌납하는 일한 병합조약에 서명한 곳이라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위원회가 정부예산 지원없이 시민 2만여명의 기부금을 받아 올해 8월 29일 이곳을 위안부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또 웬일인가? 그 곳에는 3미터는 뒤틀린 화강암 비석이 한문글자(男爵 林權助彫像)가 거꾸로 보이게 뒤집어져 세워져 있었다. 실수일까? 그럴 리는 없을 터이니 무슨 사연인가 싶어 다가서 보니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공역을 기리는 그의 동상에 붙어 있던 비석이었다. 그 비석을 거꾸로 뒤집어 세워 놓은 것은 그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1899년 조선주재 공사로 부임한 곤스케는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정동극장 뒤)에서 이 조약을 강요하려 조선을 방문하여 고종을 협박한 이도 히로부미와 함께 이완용이 가져온 관인을 찍어서 을사늑약(일제에 의해 강제된 한일 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을 체결케 하는 공로를 세운 인물이다. 그는 이렇게 한일병합의 길을 열은 공로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남작이라는 작위를 받았고 이도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후 그 관저에 동상까지 세워준 것이다.



최병호 주 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 역임

사설

불황의 늪에 빠진 전북경제

불황의 늪에 빠진 전북 경제가 걱정이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 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나 감소했다. 그리고 건설 수주도 폭 떨어지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관심사가 온통 그쪽에 쏠려 있다. 그리고 밖으로는 미국발 트럼프의 대외 정책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헤쳐나가고 합들 관인데 정말 이지 않잖아 답답하다. 전북도는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전북도가 멀치고 있어나야 맞는데 그게 아니냐 말이다. 아직도 엄청난 빚에 짓눌리고 있기에 그럴 터이다. 전북도가 빚없는 지자체 만들기에 몰인하겠다는 천명하지도 이제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해야겠다. 우리 지역의 경제는 걸으로도 문

제가 많고 속으로도 문제가 많다. 수년 전의 일이지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지역도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했다. 그 부끄러움은 망각해선 안될 기록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한다. 그 직시하는 마음 바탕 위에서 전반적으로 살림살이의 내실을 기해야겠다. 전북도는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정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전북도는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태야 한다. 우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려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업들 말고도 도내 서민들 또한 살림살이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소득이 전국 최저라는 진단이다. 빚없는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말한 이상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국가 부채와 지자체들의 부채가 장난이 아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지금, 국내의 경제통들이 전하는 말이 걱정이다. 이따가기는 다시 또 IMF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진단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출구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 도내 영세사업자들이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도내 사정을 보면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정도 잘 안돼나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두려워 하는 지금이다. 바로 그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들 쪽에서 못해먹겠다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들 판매 실적이 저조한 중에 음식업계와 숙박업계도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서비스업계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날 영세사업자이며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어찌됐는지 그 결과가 궁궁하다.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면서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시세를 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실을 보면 바람과는 다르게 영세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합들어하고 있다. 겨울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경기 체감 또한 갈수록 온기가 식고 있으니 답답하다.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 열 명에 여덟 명 꼴로 현재의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낙관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기 보다는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발표 행각으로 나라꼴이 엉망인데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전북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내 서민들은 다들 돈벌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역력하다.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저번에 전체 소상공인 30% 정도가 적자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돈을 쥐고 있는 은행들은 미동도 않고 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가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도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독자제언

끊임없는 가정폭력, 적극적인 신고 필요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동학대 등의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법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여 본인의 배우자·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어 되돌림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 현장경찰관에게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긴급임시조치라고 한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대부

분 처벌을 꺼려한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진다면 ‘피해자 긴급구호·상담전화 1366’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우려 대상자를 관리하고 집중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웃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중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가정폭력 근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국인 전주원성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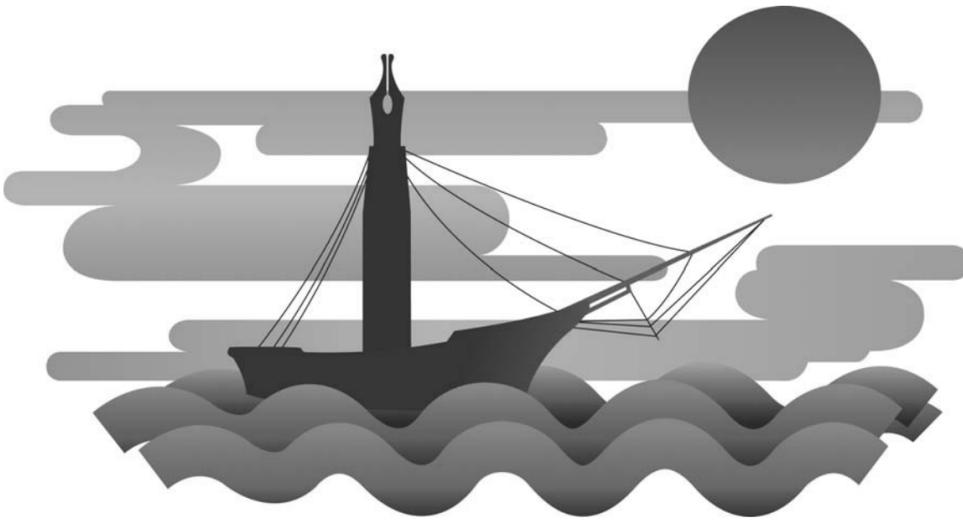
좌석 안전띠, 생명을 지키는 기본수칙

“우리나라 운전자는 과연 얼마나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다닐까.”라는 질문에 100% 착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고 운행을 시작하면서 한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손으로는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잘못된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2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6m 아래로 굴렀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의 사망률이 24배나 높았다. 또한 우리의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운전자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들도 전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나 증가할 만큼 좌석 안전띠 착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다. 좌석 안전띠 착용은, 우리가 단순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동을 걸기 전 차에 탑승하자마자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면 좀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구보민 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